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세션 10

## 체계학, 성육신, 요한복음 1:1-18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체계학, 성육신, 요한복음 1:1-18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교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의 선재성을 살펴본 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성육신에 대한 영광스러운 교리와 근본 교리로 넘어갑니다. 성육신이란 바로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존재하는 인간을 초월하여 내주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 본성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우리의 본문이고, 저는 이것을 열어서 그 구절에서 신학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제 이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제가 이해하는 네 번째 복음서의 서론입니다. 저는 21장을 에필로그로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 서문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문과 에필로그를 보고, 119장부터 20장 끝까지가 네 번째 복음서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2장과 13장 사이에 큰 단절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을 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표적, 일곱 표적은 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로 끝납니다.

시간적 말씀에 변화가 있고, 12:1에서 13을 예상하면서, 죄송합니다, 13:1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아셨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훨씬 더 복잡했지만, 그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은 아직 그렇게 오지 않았고,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12장 끝과 13장 시작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것은 내가 방금 읽은 것처럼,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그의 시간에 대해 말합니다.

좀 더 복잡하지만, 요한복음에서 12장과 13장 사이에 큰 단절이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청중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12장을 통한 세상이고, 12:36-37에서 보았듯이, 바로 거기입니다.

왜 나는 그 정확한 장소를 계속 잊어버리는 걸까? 그가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다. 37절은 20:30과 31의 목적 진술과 일치한다. 그들은 세상,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이다.

하지만 13:1부터 청중이 바뀐다. 예수께서 세상의 다락방 문을 닫으시고 얼마 후 유다를 제외한 12제자에게 말씀하신다. 13:11 이후 제자들은 친밀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은 그들을, 그리고 그분을, 그의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 인도했다.

따라서 제 개요는 요한복음 1:1-18 서론, 요한복음 1:19에서 12장 끝까지, 표징의 책이라고 불리는 책,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13-20장, 영광의 책, 그리고 1장, 에필로그입니다. 서론은 아름다운 문학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충만한 신학적 문학으로 유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ESV에서 읽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빛에 대한 증인으로 왔고, 빛에 대해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믿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통해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으나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 세상에 왔느니라.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한 모든 사람,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시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이라. 이는 그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 그는 아버지 곁에 계시나니 그는 그를 알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풍부한 구절입니다. 먼저 문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카이아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병렬 구조는 이러한 문자가 단어와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패턴을 따릅니다. ABC, ABC 또는 ABCDE, ABCDE와 같습니다. 역 병렬 구조 또는 카이아즘은 병렬 구조의 두 번째 멤버를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ABC, CBA. 이 경우 패턴은 AB, B', A'. A이고, 이것들은 무엇보다도 아들의 명칭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지만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말씀, 로고스로 명명되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그의 동시대 환경에서 얻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볼 수 있듯이, 그는 창세기 1:1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으로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또는 이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들은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고, 그는 우선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빛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으로,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믿게 하기 위해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왔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지만 빛을 증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참된 빛은 신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지만, 빛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 패턴이 시작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말씀, 1절. 빛, 적어도 7절까지는. 빛의 이미지는 이전에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사람, 아들, 빛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제, 이 구절이 일반적인 병렬을 따른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 빛, 말씀의 관점에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런 다음 빛의 관점에서 성육신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순서가 역전되었습니다. 1절에 말씀이 있고, 7절에 빛이 있고, 말씀의 관점에서는 성육신이 없고, 오히려 9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A, B, B prime, 빛, 그리고 빛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14절에서 A prime,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래서 큰 패턴은 이렇습니다. 말씀, 빛, 세상으로의 빛, 9, 말씀이 육신이 되심, 14. 이 구조는 물론 성육신의 기적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요한 복음에 있어서 전략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만 명확하게 가르쳐지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많은 곳에서 가정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왔다”와 같은 말을 하실 것입니다.

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시다, 그런 종류의 말과 같습니다. 그는 여기서 노골적으로 언급된 것을 암시하고 가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왜 이런 명칭, 말씀과 빛? 요한은 아들에 대한 큰 그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그가 신을 계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미지들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도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은 설교, 말씀, 연설, 발언입니다.

빛은 비춘다. 그것은 사물을 비춘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오, 아들은 세상의 빛이시다. 서론은 네 번째 복음서의 많은 주제를 소개합니다. 이 주제들은 나중에 복음서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말씀은 다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이 두 장 모두 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개념은 네 번째 복음서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빛의 이미지는 3장에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가장 광범위하게는, 농담은 용서하세요, 9장에서 조명됩니다. 세상의 빛인 예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례 없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는 그에게 물리적 시력을 줍니다. 그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장님이 말했듯이요. 오, 그 구절은 그렇습니다. 거의 유머러스하죠.

그것은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의 무지와 증오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증오와, 눈먼 사람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를 작은 녀석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누구, 헬렌 켈러가 없어. 점자도 없고, 안내견도 없어. 그는 아는 게 거의 없지, 그렇지?

그리고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견뎌냅니다. 그가 볼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실, 이제 그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고침을 받았을 때 결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믿었습니다.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찾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 남자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적 시력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력을 얻습니다.

그는 보고, 그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도자들에게 증거합니다.

오, 놀랍네요.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세가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까? 세계 역사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눈먼 사람을 고쳐준다는 것.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줬어. 그는 분명히 신에게서 온 거야. 바보 들 . 오, 세상에. 그는 바보 들 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 하지만, 그는 화가 났어. 그는 행복하지 않아. 그는 예수를 변호하고 있어.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 종교, 그리고 사람들 전체에 반하여 예수를 선택합니다. 그의 부모는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 우리는 모릅니다. 그는 우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성인입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요한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로마 세계로 퍼지면서 더 많은 공식적인 파문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떤 회당들은 어쨌든 예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전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카인을 키우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빛을 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농담은 용서하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장은 엄청난 상징주의로 끝납니다. 나는 세상에 왔다고 그는 말합니다. 눈먼 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보는 자들은 눈이 멀게 될 수 있도록.

글쎄요, 첫 번째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눈먼 사람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다른 눈먼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눈먼 바디매오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는 누구의 눈도 멀게 한 적이 없지, 그렇지? 육체적으로. 그는 눈멀게 하지 않았어. 아니.

그건 풀이 나중에 하는 일이었을 거야. 어쨌든. 아니,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서에서 자주 그렇듯이, 그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 말씀하기 위해 물리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오해의 근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물가의 여자에게 그가 살아있는 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약간 흥분해. 당신이 말하는 이 샘은 어디야? 그는 영원한 삶과 성령에 대해 말하고 있어. 어느 것인지 알기가 어려워.

어느 것이든 다른 하나가 함축되어 있다. 아마도 영원한 삶이나 혹은 영일 것이다.

정말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스승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 중 하나를 합니다. 사람이 늙었을 때 어떻게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니고데모, 당신은 영적 유치원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스겔 36장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어서요.



37, 프로그램에 따라가세요. 오, 세상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못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는 그와 마주합니다. 그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데, 이는 특히 예제키엘 36장의 재생 교리에 대한 좋은 성경적 교훈입니다.

어쨌든, 예수는 세상의 빛이야. 그는 아버지의 계시자야. 그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 확실하게. 권위 있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달리. 네 번째 복음서에서 계시자라는 것과 더불어 예수에 대한 또 다른 큰 그림은 그가 주는 자, 영원한 생명을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주는 자이다.

그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며, 그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맞죠? 놀랍죠.

그리고 이미 1장에서 예수는 계시자, 말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몬트와 다른 비평가들은 1. 1. 5의 배경을 그리스 형이상학 문헌에서 찾았습니다.

틀렸어요. 배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과 2장이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 성육신 이전의 아들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대리인이었어요, 3절.

이렇게 포괄적인 언어입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을 긍정하고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포괄적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위치.

조이는 요한 복음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항상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위치는 로고스, 즉 성육신 이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모든 창조된 생명의 근원이었던 말씀에 거주하는 영원한 생명은 3절에서 빛, 즉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신학자들이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든 것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아들 , 기술적으로 로고스, 말씀은 그가 만든 것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1.4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육신 이전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를 그렇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요한 복음에서 자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일반 계시에서 창조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는,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하신 말씀이 그를 믿는 남녀를 구원하기 위해 초자연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람이 되기 전에 아버지를 계시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계시할 자격이 있고, 생명을 주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것의 창조자였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오, 다시 한 번, 전치사를 봅니다. 그를 통해,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 행위성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와 동등한 아들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해하시죠.

하지만 아들은 창조자의 일을 합니다. 그는 신입니다. 그는 사람이 되기 전에 창조에 생명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 나의 선하심이여, 그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생을 줄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줄 자격이 있느냐?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다. 그리고 창조자의 생명 주는 자는 새 창조자의 생명 주는 자이며,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카이아즘의 구조, 말씀, 빛, 세상에 오는 빛, 말씀이 육신이 됨은 성육신을 가리키며, 이는 요한 복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 전제, 기초이다.

성육신은 기초적입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9절,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저는 이 번역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를 들어 킹 제임스 버전은 참 빛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웨슬리안 인식론과 신학에서 보편적 선행적 은혜에 대한 웨슬리안 교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세인트 오거스틴이 주장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선행적입니다. 즉,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행, 준비, 선행, 라틴어 *prevenient* e 에서 유래한 은혜는 효과적이며 따라서 특정합니다. 우리의 웨슬리안 형제 자매와 그리스도 안의 친구들에게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그들과 은혜롭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예요. 물론, 그들은 보편적인 선행 은혜 교리를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신학적 체계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위 신학이 아니라 원죄의 효과를 무효화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준비 은혜에 근거한 신앙 신학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영역에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 책들은 무능에 대해 말하고, 일부 웨슬리안 신학 책들, 일부 아르미니우스 신학 책들, 그리고 웨슬리안 설득은 특히 은혜로운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글쎄요, 다른 구절에서는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친절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준다고 번역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회적인 구성이며 NASB, NIV, ESV는 옳습니다. 즉,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육신의 진술입니다. 빛의 이미지에서 세상은 어둠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로는 그것은 신을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을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중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바로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지와 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빛이 세상에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그는 세상에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참된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데, 모든 사람이 세상에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구절에는 성육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10절에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이런저런 것들입니다. 이해하시나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칼빈주의를 포함한 철학자들은 이것을 저스틴의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Logos Spermatikos) , 즉 모든 사람에게 이성을 주는 신에 대한 증거 텍스트로 사용했지만, 저는 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육신한 말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육신의 빛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유를 섞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비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역사적 진술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참된 빛은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줍니다. 7장, 성전 경찰이 초막절에 예수를 구출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성전 경찰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을 이 남자를 체포하라고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도 이 사람이 말한 방식대로 말한 적이 없어. 의미는, 그는 빛이라는 거야.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가져온다.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신에게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이며, 신을 계시하는 자입니다.

네, 서론의 구조는 참 빛이 세상에 온다고 말할 때 성육신을 가리키고, 물론 14절에서 놀라운 가르침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 아폴리나리우스 는 틀렸고, 아폴리나리주의는 틀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육신을 의미하고 영혼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 언어, 인간성, 인간성을 위한 육신입니다. 즉, 육체와 영혼 모두에서 인간의 심리를 강조하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은 신조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과 피가 있는 인간이 되었지만, 죄는 제외되었습니다.

죄는 인류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탈입니다. 그것은 뒤틀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에서 치유하실 질병이며, 이미 부분적으로는 그의 백성의 거듭남에서, 거듭남에서 치유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노라. 영광은 아버지로부터 온 독생자의 것이요 은혜 와 진리로 충만하도다.

이 두 진술에서 참 빛이 세상에 왔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성육신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장의 배경은 창세기 1장입니다. 시작 부분에는 요한이 성경의 첫 구절로 돌아가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는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이 있는데, 그것은 같은 NRK이고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의 단어는 다음과平行합니다. 그리고 신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신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신이 말씀하셨다. 여기서 신에 대한 그 말씀과 말씀하시는 신 자신이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이시며, 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며, 창조 당시에 이미 존재하셨고, 더구나 그가 성육신하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은 창세기 1장에서 문자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창조에서 가져오신 계시와 어둠, 즉 하나님에 대한 반대를 말합니다. ESV는 옳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셨나요? 네,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요한 복음에서 어둠은 빛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3장에서 빛과 어둠의 주제에 대한 설명이 보여주듯이, 그것은 빛을 끄고 싶어합니다. 창조, 세상에.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창조입니다.

여기서 주제는, 적어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것.

저는 표준 UBS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구두점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렇게 합시다. 의미가 있어야 하고, 그들의 구두점은 실제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적 가르침.

태양의 선재는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는 창조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입니다. 그는 세상에 오는 빛입니다.

그는 육신이 된 로고스이며,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 즉 출생과 인간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요점이며, 이 구절에서 성육신이 네 번째 복음서의 메시지를 위한 전략적 방식으로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복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로 계속 가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말씀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9절과 14절. 그 때문에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14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 단어는 sarx ,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흙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 형이상학과 그리스 철학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을 더러운 육체와 연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마리아의 자궁에서 말씀을 분리하려는 동정녀 잉태에 대한 견해를 볼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지만, 오염은 없습니다. 자궁은 더럽고, 살은 더럽고, 섹스는 더럽고, 인간의 몸은 그리스인들에게 더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두 방향으로 갔습니다.

가벼운 야생의 자유, 또는 그런 더러운 것에 대한 완전한 금욕. 성경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느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몸은 그의 창조물입니다. 섹스는 그가 정한 대로 사용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궁은, 신께 감사하게도, 우리가 잉태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한 여인의 태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여성성을 거룩하게 하고 태를 갖는 것입니다. 그의 인간성은 또한 요한 세례자가 예수가 자기 뒤에 왔다고 말할 때 14절과 15절에서 확증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했듯이, 시간적으로, 출생적으로, 그리고 사역적으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입니다. 오, 제자들은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맙소사.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은,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활한 후에야 그들은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한 말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람과 파도가 그에게 복종한다. 이 사람, 이 인간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악마들이 그에게 복종할 만큼 권위 있게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지만 요한은 가장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그가 성육신을 가르칠 때, 그 전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르칩니다.

오, 세상에. 이게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니라 성육신에 대한 우리의 주요 구절이에요. 그건 히브리서 1장인데, 거기에는 신성에 대한 다섯 가지 역사적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아는 유일한 구절은 정확히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요한 복음은 장마다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단어는 신이었습니다. 장, 구절 1, 장 1:1. "신"이어야 하지 않나요? 틀렸습니다.

글쎄요, "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어로 신을 뜻하는 단어가 아닌가요? 관사 없이 테오스라고요? 네. 글쎄요, 왜 "신"이라고 번역하는 건가요? 여호와의 증인 신세계 오역이 그렇게 하는 거 맞죠? 맞죠? 정확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들은 신의 아들에 대해 너무 편견이 있어서, 타오스를 관사 없이 일관성 없이 번역합니다.

이 장 6절에 "신"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 등장하죠? 관사가 없는 동일한 단어, 신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인물 중 한 명이 제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학 과정을 수강했고, 그들이 하는 말에 저는 다 대답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제게 대답할 수 없었고, 그 사람은 항상 본부에 있는 누군가에게 돌아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오, 어둠의 힘을 보여줬어. 내가 그에게 보여줬을 때는 관사가 없는 같은 단어였어. 물론, 그리스어 어미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

그리고 그는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그리스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일본어를 안다고 가장하지 않으므로,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오, 세상에. 그리고 12장은 어때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어요, 맞죠?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분명히 거기에는 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6절에 있는 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매우 편향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1절에 있는 신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단어의 위치 때문에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강조해서... 제가 잘못 말했을 뿐입니다.

실례합니다. 강조된 첫 번째 위치일 수 있습니다. 강조된 마지막 위치가 아닙니다.

제가 틀렸어요. 그리고 그 단어는 신이었습니다. 아주 시작 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단순하고 직접적인 확인.

사실, 그 전에도요.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셨죠?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성경의 첫 구절에서 엘로힘, 신의 자리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글썄요, 그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가정한 것을 그는 두 절 뒤에 명확히 말한다. 그 단어는 신이었다. 그 단어가 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 언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원론적 신학의 기초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 강의에서 John이 관습적으로, 항상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일관되게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구원적으로 영을 오순절 이후에 본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요한에게서 이원론을 얻고, 그런 다음 작별 담화에서 그가 말한 것과 물론 다른 곳, 특히 바울이 말한 것에 근거하여 삼위일체론을 외삽하고 추론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천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천사가 창조자였나요, 3절? 아니요. 천사는 신의 피조물입니다.

오, 아들, 영원한 아들은 성육신으로 피조물이 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창조자 피조물, 신-인간이 됩니다. 하지만 3절과 4절은 그가 창조된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대리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창조의 원이 아니라 신의 원 안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고, 등등. 10절: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창조가 있습니다.

그 거절을 좀 들어보세요. 그는 이전 구절에서 참 빛이 세상에 오고 세상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다른 어떤 존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부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이 되어 자신을 언약의 사람들에게 바쳤고, 그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때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 거부는 없습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몰트만 처럼 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신은 죽을 수 있도록 사람이 되었다. 신은 죽을 수 없지만 신비롭게도 죽은 사람은 신이었다. 즉, 성육신의 신비가 십자가에 신비로움을 더한다.

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저의 20시간 분량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biblicalelearning.org](http://biblicalelearning.org)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요한 자신이 번역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1절: 그는 스스로 오셨고 그의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9장에서 저는 거기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보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이루셨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존이 그녀를 자신의 물건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으로 말하죠.

정확히 같은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목수는 목수가 되기 전에 세상을 만들었고, 그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번역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입니다.

세상은 그의 손수 만든 작품입니다. 그것은 그의 집이지만, 그는 언약 백성의 평가에 있어서는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요한이 네 번째 복음서에서 믿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작은 과정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것, 그의 이름을 믿는 것, 그를 영접하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등 여섯 가지 방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를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신뢰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은 요한이 대명사를 섞어서 사용했다고 말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가 때때로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요. 저는 성경에 반대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때때로 요한 1서가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지 아들에 대해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들 이 입양자입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는 아버지가 입양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줍니다.

아버지 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영광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속성입니다. 요한은 육신을 입은 자의 신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 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짧은 기간,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증인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표적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이미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1장에서, 만약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불쌍한 마리아와 마르다.

주님, 그의 몸은 냄새가 날 거야. 이 조합이 좋다. 그의 몸은 냄새가 날 거야.

신, 요한, 요한을 통한 주님은 인간 죽음의 악취를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적어도 그래야 했겠죠?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서 드러난 신의 영광과 함께. 친구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

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재하고, 그래서 그는 요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15절에서 요한은 그가 나보다 먼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만이 선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충만함, 곧 성육신하신 아들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감각이 있지만, 이런 감각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육신하신 아들 안에 있는 신성의 총만함에서 인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하며 글을 씁니다. 저를 거듭거듭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부드럽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이 구절은 불행히도 크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존,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만합니다. 존의 스타일에서 한 가지 특징은 대머리 대조, 실제로는 절대적이지 않은 절대적 대조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14장인지 15장인지 16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잃어버렸어요. 작별 담화에 있어요.

나는 확신한다. 그것은 문자적인 진술이 아니다. 예수는 원죄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는 이 사람들이 무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과장의 형태다. 신성한 과장이나 과장.

그것에 대한 기술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제게 떠오를 겁니다. 의미는, 그들이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당신의 이전 죄가 상당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의 죄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계시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큰 계시는 더 큰 심판을 멸시했습니다. 내가 그 행위와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을 너희들 사이에 합쳤을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처럼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가 있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내가 너희 앞에서 표적을 행하였으므로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느니라.

분명 그들은 믿을 거야. 틀렸어. 11장이야.

12장, 그들은 라자로에 대한 사형 영장을 내렸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는 걸어다니는 증거적 변명자입니다. 그들은 그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가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그들이 믿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야. 그게 진실이야. 얼마나 슬픈지.

인류에 대한 고발이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죄에 대한 교리는 대체로 불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론에서 성육신을 탐구하고 있으며, 그것과 함께 전달되는 놀라운 하위 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재,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간성. 신성은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18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곁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 그는 그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교부 중 한 사람이 말했듯이 아들을 두 번째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신과 동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쌍한 아버지는 이 사람도 신이라는 것을 전달할 언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 그것은 일신교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1과 1:18은 사실 큰 형태의 책받침을 형성합니다.

요한은 서론을 시작하고 끝맺으며 그 말씀은 신이었고 아버지 곁에 있는 유일한 신이 그를 계시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육신 이전의 아들은 신입니다.

성육신한 아들은 신입니다. 이것은 풍부한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의 요점은 신의 아들의 성육신이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년간 크리스마스 때 학생들에게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교회에서 가장 작은 아기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라고 격려해 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손가락으로 작은 팔이나 다리를 만지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기가 당신의 작은 손가락을 잡도록 허락할 거예요. 그들이 작은 손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맞죠? 어쨌든 아기는 놀랍습니다. 저는 아기를 사랑하고 아기는 인간을 우는 사람 , 올빼미 , 우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으로 바뀌요. 그거 좋긴 하지만, 당신은 그 아기를 잠깐이라도 숭배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물론 아닙니다.

터무니없죠. 하지만 목동들은 아기를 숭배했고, 나중에는 동방박사들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현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현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의 은총으로,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경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세계 역사상 독특한 사건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우리 죄인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신조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이 문제를 더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이 축복하시기를. 1-18절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체계학, 성육신, 요한복음 1:1-18입니다.